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김 용 희**

교사는 음악영재를 가장 잘 알고 지지해주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국·공립 영재교육원 교사들이 인식하는 음악영재의 교육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위하여 질적 연구 중 면담의 자료수집 및 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네 가지 주요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교사들은 음악영재의 가족 환경, 특히 부모의 역할이 재능의 발굴 및 계발, 지원에 있어서 지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열성이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에 영재성의 발달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도 부모 다음으로 크다고 인식하였는데, 영재성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의 실력과 수준,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많은 교사들이 일부 음악영재아의 사회성 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음악영재 관별 및 교육 정책, 교육과정 등에 관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 주제어 : 음악영재, 영재 교사, 음악영재교육, 영재 환경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연구절차
 - 3. 연구자의 입장
 - 4. 자료 분석
- IV. 분석 결과
 - 1. 부모의 역할 및 반작용
 - 2. 교사의 역할
 - 3. 영재 학생의 인성
 - 4. 음악영재교육
- 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 2010-SZ2010018-G0008)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가 넘는 음악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이 각 시·도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국·공립 예술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에서는 재학생들이 질 높은 음악교육을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도 교육청 산하의 예술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 음악영재학생 및 음악영재교육 환경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공립 예술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이 생긴 이래로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영재의 교육환경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태진미(2006), 해리스(Harris, 2009), 샌드(Sand, 2000), 라이트(Wight, 2002)를 포함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음악영재학생의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의 하나로서 교사를 들고 있다.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에 관하여 부모 다음으로 잘 알고 있으며 영재발달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앞에 열거한 연구자들은 음악영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시에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공립 예술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에 소속된 교사들은 이들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음악영재교육환경에 관하여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¹⁾.

II. 이론적 배경

음악영재학생의 재능은 어린 시절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음악영재에 관한 441개의 문헌을 조사한 슈터(Shuter, 1968)는 음악가들 중 2-4세에 적성이 발견된 경우가 절반이라고 보고한다. 모차르트(Mozart)는 7세 때부터 즉흥연주를 할 수 있었으며, 멘델스존(Mendelssohn)은 11세부터 능숙한 작곡을 할 수 있었고, 리스트(Liszt)는 9세에 이미 뛰어난 연주를 할 수 있었다(김용희, 2010).

위와 같은 음악영재의 재능발달에는 천부적인 요인 외에 후천적 환경이 필요한데, 이에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연습(Ericsson, Nandagopal and Roring, 2005), 통찰력과 의욕을 가진 부모(Harris, 2009), 적절한 훈련과 교사(Freeman, 1998;

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영재의 배경 환경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이루어졌으며, 관련된 일련의 연구 중 마지막 연구이다.

Wright, 2002), 다양한 사회적 기회(Chin and Harrington, 2007) 등이 포함된다. 해리스(2009)는 음악영재 발달에 필요한 기간은 자극적 환경이 동반된 10-15년이라고 이야기한다. 소스니엑(Sosniak, 1985) 또한 최소 10년의 기간이 음악전문가가 되기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음악영재를 위한 교사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강조되어 왔는데, 라이트(Wright, 2002)는 음악영재학생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소스니엑은(1985)은 음악영재학생의 실력 향상에 따른 적절한 교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교사는 자기가 알아서 더 나은 교사로 바꾸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김용희, 2011). 좋은 교사는 실력이 뛰어난 뿐 아니라 학생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데(Chin and Harrington, 2007), 예를 들면, 드뷔시는 파리 음악원의 젊은 강사 라비냐(Lavignac)에 의하여 작곡의 열정을 불태우게 되었다(Freeman, 1999).

정경화, 정명훈, 요요 마(Yo-yo Ma) 등 국내외 음악영재들의 음악교육상황을 조사한 정유하(2003)는 대부분의 국내 음악영재가 외국의 음악예비학교에서 최고의 교사들과 학습한 사실을 보고한다. 최고의 교사 중의 한 예로써는 도로시 딜레이(Dorothy DeLay)를 들 수 있다. 딜레이는 민주적이고 유연하며 각 학생의 특성을 배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유명했다(Sand, 2000). 그녀의 제자는 전 세계의 유명 바이올린 경연을 휩쓸었는데 그들 중에는 이착 펄만(Itzhak Perlman), 초량 린(Cho-Liang Lin), 슬로모 민츠(Shlomo Mintz), 장영주, 미도리(Midori) 등 많은 명연주자가 포함된다. 딜레이의 제자들은 제각기 다른 음악세계와 연주 양식을 가지는데, 이것은 제자의 크기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레슨을 제공하는 딜레이의 뛰어난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김용희, 2011).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먼저 남한의 각 지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16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협조 의사를 질문하였다. 연구에 협조한 교사는 12개 기관의 18명 교사였다. 우리나라 음악영재원 및 영재학급의 수가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들 지역의 기관을 많이 포함시켰다.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름 대신에 알파벳 문자(A-R)로 대신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 18명 중 남자는 5명, 여자는 13명이었으며, 연령은 32-48 세이고 평균 연령은 41.1세이었다. 교사의 전공은 작곡(2명), 피아노(5명), 바이올린(3명), 비올라(1명), 클라리넷(1명), 성악(2명), 피리(1명), 음악교육(3명)이었다. 그들의 교육 경력은 3-22년으로 평균 10.6년의 교육 경력을 가졌고, 영재교육경력 은 1-9년으로 평균 3.3년이었다.

18명의 교사 전원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사 학위가 9명, 석사 학위 혹은 유럽의 디플로마를 가진 교사가 9명이었다. 그들의 직업은 대학교수(4명), 대학이나 예고 시간강사(11명), 교사(2명), 오케스트라 단원(1명)이었다.

2. 연구절차

이 연구는 음악영재 학생의 환경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세 번째 연구로 행해졌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에서 본 연구자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학생과 부모가 인식하는 우리나라 음악영재 학생들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 두 개의 연구에서 학생과 부모들은 모두 우리나라 음악영재 환경의 인적(가족 및 교사)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연구인 교사 면담을 위하여서는 질적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의 형태 중 가장 흔한 형태의 개인 간, 구어적,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면담자가 대략의 주제는 가지지만 정확하게 서술된 형태의 질문을 가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면담의 주제는 앞의 이론적 고찰에서 열거한 학자들, 예를 들어, 블룸(Bloom, 1985), 친 및 해링튼(Chin & Harrington, 2007), 에릭슨, 난다고팔 및 로링(Ericsson, Nandagopal and Roring, 2005), 프리먼(Freeman, 1999), 파푸섹(Papousek, 1996), 루사츠, 데터만, 그리스콤 및 시룰로(Rusatz, Detterman, Griscom and Cirullo, 2008), 샌드(Sand, 2000), 슬로보다 및 호위(Sloboda & Howe, 1991) 등 음악영재 환경에 관한 이전의 연구에 근거하여 정해졌다. 이들에 따른 “면담 지침”은 배경적 질문(질문1과 질문2) 외에 다음과 같은 범주를 가졌다. 음악영재 학생의 일반적 특성(질문3), 음악영재 지도(질문4), 음악영재에 대한 부모의 역할(질문5), 음악영재에 대한 교사의 역할(질문6), 음악영재에 대한 정서적 지원(질문8) 등. 면담에는 예비 연구 및 학생과 부모 설문 결과에 따른 보충적

질문들이 포함되었으며, 반구조화 면담의 특성에 따라 상황적 질문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자료는 2011년 2월 5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4주에 걸쳐서 전화통화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2명을 제외한 면담자는 전화통화(25분 내지 45분)에 의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2명은 면담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메일로 면담을 하였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에 의하여 수기로 기록되고 후에 자료 분석을 위하여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약되었다.

3. 연구자의 입장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므로 연구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속한 일련의 연구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연구자는 사전 연구의 발견에 따른 다음의 몇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음악영재 학생들은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재정적·물리적·정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고 느낀다; 둘째, 음악영재 학생들은 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들로부터 학업적·기술적·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느낀다; 셋째, 대부분 음악영재의 부모들이 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결과적으로 본 연구 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자료 분석

면담된 내용은 모두 기록된 후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분석 혹은 귀납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분석 방법이란 교육학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질적 분석 방법의 하나로써, 수집된 자료에 나타난 사고를 체계화한 후 실재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개인이 사실을 어떻게 독특하게 지각하는가를 중시한다(Petersson and Mystrom, 2011).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18개의 모든 면담 자료를 반복하여 읽은 후 도출된 범주들의 패턴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화에 있어서 각 개인들의 응답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주제에 의하여 면담 내용 자료를 범주화하는 동시에 자료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다양한 면담 자료들 사이의 상호맥락을 본 다음에 분석된 자료를 중심으로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Ⅲ. 분석 결과

교사 면담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부모의 역할 및 반작용, 교사의 역할, 영재학생의 인성, 음악영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이었다.

1. 부모의 역할 및 반작용

면담 결과, 1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음악영재아의 발굴과 발전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응답하였다. 1명의 응답자는 부모의 역할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4명의 응답자는 부모의 관심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영재로 자라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였다.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어도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교사L). 또 다른 교사는 “교사는 2주 1회 학생을 접촉할 뿐, 그 외의 시간에는 부모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사M).

음악재능의 발견 및 개발에 있어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Chin and Harrington, 2007; Dai and Scahder, 2002; Distin, 2006; Harris, 2009; Mareck-Schroer and Schroer 등). 그리고 음악영재원에 다니는 대부분 학생들의 부모는 실제적으로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부분 면접자가 부모의 지나친 관심, 과열된 교육욕구가 학생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레슨 내용 등 교사의 전문분야에도 간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부모님은 캠코더를 갖고 레슨을 쫓아다니셔서 교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영재원의 성적에 대하여 우리 아이가 왜 수석이 아니냐고 항의하시기도 한다. 부모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텐데...(교사C).

어떤 교사는 “콩쿠르 한 번 입상하면 자기 아이가 무조건 영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를 잡고 흔들려고 한다”고 하였다(교사D). 또 다른 교사는 “간섭이 지나치시다.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술, 양상블 등을 왜 해야 하느냐며 반대하신다”고 말하였다(교사I). 부모의 이러한 과열 욕구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듯이 보이기도 하였다.

부모들도 머리로는 이해하나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못 견뎌다. 밀어붙이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교사I).

부모는 자기 아이가 영재이기를 바라고 영재라고 믿는다.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기대감이 아이에게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듯싶다(교사C).

음악영재교육에 부모교육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그러한 응답자들은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학생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대화가 있어야한다고 말하였으며 영재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상설화되어야한다고 하였다.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교사C). “이곳은 기계적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음악적 리더를 키우는 기관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시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교사Q).

그러나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 모든 음악영재 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매우 소수의 숫자를 차지하는 작곡 전공 학생, 특히 남학생에게는 예외였다.

작곡 전공 남학생의 경우는 자기가 관심 있어서 하는 아이들이 많고 부모는 거의 지원을 안 하신다. 아니 오히려 진로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다. 특히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경우에...작곡 전공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반대만 안 하셔도 도와주시는 것이다(교사B).

그러나 연주 전공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학부모가 더욱 교육열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응답자가 있었다(교사D).

2. 교사의 역할

음악영재의 지도에 적합한 교사는 영재학생에게 적절한 기대 수준, 영재학생에 대한 개인적 관심, 각 학생을 위한 개별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김용희, 2010).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음악영재학생을 위하여 교사의 역할이 부모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한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능력이 다르게 이끌어내진다”라고 말하였다(교사L). 또 다른 교사는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 교사가 실력이 떨어지면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다(교사J). 응답자들은 음악영재의 교사가 실력 뿐 아니라 인성과 성품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르치는 수준 뿐 아니라 인격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 스승을 잘 만나야 학생들의 영재성이 개발된다”(교사D).

특별히 성격적으로 예민한 학생을 위해서는 교사의 인품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소심한 학생을 너무 꾸중만 하면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어떤 교사는 “격려를 안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말하였다(교사M). “너무 차가운 교사는 좋지 않다. 피아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교사도 있었다(교사H). 다시 말하면,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을 교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교사는 “처음에는 천재성을 가진 듯 보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집착력이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했다. 그 아이의 그런 면을 미리 알아서 이끌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교사B).

3. 영재학생의 인성

음악영재 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 한다. 음악영재 학생들이 내성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하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에(태진미, 2006; Dai and Schader, 2002), 적어도 연주 전공의 영재들은 외향적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Chin and Harrington, 2007). 음악영재학생들의 일반적인 성격이 어떻든 간에 면담에 임한 교사들은, 일부의 음악영재학생이 지극히 내성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부도 잘 하는데 학교에서 왕따인 경우가 많이 있다. 주요 관심이 음악이다 보니 또래 아이들이 보는 TV 프로그램도 보지 않고 게임도 안 하고 하니까 공통된 관심사가 없기도 하다(교사B).

다른 응답자는 말했다.

영재성을 가진 학생이 잘못하면 영화의 레인맨처럼 될 수도 있다. 최근 방송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모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경우가 미국 유명 콘서바토리 학생들 중 1/4정도 된다고 본다. 갈라미언이 하는 음악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9주 동안 계속 바이올린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잘 버티는 학생은 크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별줄 때 독방에 가두기도 한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방에서 혼자 수 시간씩 연습만하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보라(교사F).

특히 음악을 전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 학생들에 대하여 어른들은 흔히 걱정을 표한다. 그것은 요즘 학생들이 예의가 바르지 않고 배려심이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우려의 음성을 응답자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났지 않은가? 그리고 좋은 음악도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인성적으로 망가져가면서까지 좋은 음악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일까? (교사D).

그밖에 한국에서 음악영재로 산다는 자체가 학생들의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재주는 있는데, 현실에서 중학생으로 살다 보니까 지치는 아이가 있다. 음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교사E).

(현재 체제 하에서) 아이가 고민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 급수 따기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 아이의 재능이 분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어떤 아이는 대안학교에 진학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선 이 방법이 아이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다 (교사F).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은 격려하고 도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하였다.

될 수 있으면 칭찬을 해 준다. 연주 때에도 격려를 많이 한다. 인문계 학교의 아이들이 피아노에 전념할 수 없는 사실을 이해해 준다. 소극적인 학생일수록 격려를 더욱 많이 한다(교사M).

이런 학생들에게 인간적인 것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모임을 갖도록 추천한다. 피아노만 치지 말고 놀기도 하라고 조언한다(교사K).

4. 음악영재교육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음악영재의 판별을 비롯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취지 등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1) 음악영재 판별

음악영재교육의 관문은 영재의 판별 및 선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음악영재교육기관은 다양한 선발 방법을 사용한 후 총점을 합산하여 학생을 뽑는 방식을 취한다. 이 중 가장 비중 있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실기 시험이며, 그 외에 수업관찰평가, 적성검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적성검사, 학교장 혹은 교사 추천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이미경, 2010b). 최근에는 이미 성취된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된 능력 및 창의성을 판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원영실,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응답자 중 2명은 현재의 음악영재 판별 체계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발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가 가르치기 편하고 선행 학습이 잘 되어 있고 테크닉 좋은 학생만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피아노나 첼로 같은 기악 전공은 테크닉이 좋고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학생을 뽑는 모습이 아쉬웠다(교사G).

성취된 기술을 보고 음악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뽑을 것인지 잠재력을 보고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의 목표나 학생의 전공, 예를 들면 실기 전공인가 작곡 전공인가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음악영재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사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회의를 표하는 응답자가 있었는데, 한 교사는 “초등교사가 영재를 뽑는 방식이 낙후되어 있다”고 말하였다(교사Q).

2) 음악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 음악영재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체계적 연구 혹은 교육과정을 위한 원칙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된다(이미경, 2010a). 이것은 본 연구의 교사 면담에서도 발견되었는데, 2명의 응답자는 현재의 영재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 특히 연계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중학생에게만 영재교육이 제공되고 고등학교로 연결되지 않는다. 좀 더 연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교사G).

영재교육이 단기 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영재교육 계획이 1년짜리 지원이 대부분이고 프로그램도 1년짜리가 대부분이다(교사B).

물론 체계적 음악영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기관이 현재 존재하기도 하지만 새롭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노력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음악영재교육의 목적과 내용

음악영재교육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질문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응답자들은 많은 학생이 입시나 경력 쌓는 수단으로써 음악영재교육을 받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이 또 하나의 입시 교육으로 전락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 교사는 “어떤 학부모는 단지 영재로 뽑히고 싶다는 희망 때문에 음악영재 교육을 받는다”고 말하였다(교사Q). “그런 학부모에게 영재교육의 주제는 과학이든 수학이든 상관이 없다. 아니, 과학이나 수학에서 영재로 뽑히지 못했기 때문에 음악을 선택한다. 이런 사람에게 영재원은 단지 입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교사Q).

음악영재교육의 내용에 관하여서 응답자들은 실기 기술의 향상 뿐 아니라 음악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 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를 들면, 한 교사는 “단편적 지식보다 듣는 귀를 갖는 것, 음악에 대하여 알고,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교사R). 이 교사는 학생들이 음악을 전체적 큰 그림으로 보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음악 감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음악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도록 독려한다고 하였다. 다른 교사는 인문학적인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작곡 전공인 그 교사는 음악학적 원리, 시나 그림에 대한 관심을 학생들에게 환기시킨다고 하였다.

4) 음악영재교육 정책 및 방향

일부의 교사는 현재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체제에 대한 회의를 표현했다. 더욱 심도 있는 음악영재교육을 위해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처럼 공교육 체제와 병행된 영재원이나 영재학급보다는 외국처럼 음악학교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한 교사는 “콘서바토리 체제로 바뀌어야 더 체계적이고 교사도 자유롭고 폭 넓게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교사R).

행정 담당자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 불만은 주로 지방에서 나왔는데, 담당자가 음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 한 교사는 “2007년 처음 만들어질 때 과학 영재처럼 학급 단위 교육을 생각하더라”고 말했다(교사Q).

이러한 인식은 현재 점차 개선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 및 음악영재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배려는 음악영재교육의 행정에 필수적일 것이다.

IV. 나가는 글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가 음악영재에게 주요한 초기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김용희, 2010, 2011, 2012; 원영실, 2011; Dai and Schader, 2002; Freeman, 1996; Harris, 2009 등). 이 연구에 참여한 면담자들 역시 부모는 음악영재의 발굴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동의하였다. 그러나 또한 대부분 면담자가 부모의 지나친 관심, 과열된 교육욕구가 학생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는 해외 문헌에서 발견할 수 없던 새로운 것으로, 우리나라 영재부모만이 보여주는 독특한 현상이다.

국내외의 문헌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양영숙·길경숙, 2009; Dai and Schader, 2002 등). 그러나 또한 부모의 지나친 성취 압력이 학생의 시험 불안, 무력감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김문주, 1990; 손낙주, 1997).

본 연구는 부모의 지나친 압력과 관심이 학생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많은 교사들이 부모의 지나친 압력과 극성이 생각과 실력이 남다른 음악영재 학생이 독립심 있고 창의적인 음악가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부모의 열심히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김영연·오주일(2004)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영재를 규정짓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부모의 열심과 관심이 도리어 자녀의 영재성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만 국가적으로 손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영재성 성취를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몇몇 응답자들이 제안했듯이 부모교육 시간이 우리나라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포함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

본 연구는 또한 음악영재관별에 대한 연구자들의 우려 및 고민을 보여주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미 뛰어난 연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지 말고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오주일, 2004 외). 그러나 실기 영재의 경우, 특별히 서양음악 실기 영재의 경우 재능이 조기에 신뢰할 만

하게 발견되며 11세경에는 기교가 완성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다(Shutter, 1968; Zimmerman, 2004 등). 그러므로 음악영재를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특성을 판별하고 개발하려 하기 보다는 서양 음악 실기처럼 재능이 빨리 발전되는 분야와 작곡처럼 재능이 비교적 뒤늦게 발전되는 분야, 혹은 국악과 양악 등의 특성을 세심하게 나누어 판별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세분화가 더 전문화되고 발전된 음악영재판별지침 개발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차별화 및 특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음악영재교육기관은 영국 예후디 메뉴힌 학교(Yehudi Menuhin School)나 러시아 립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 음악원처럼 음악전문가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도 있는 반면에, 미국의 피바디(Peabody) 예비학교처럼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교육기관, 버지니아(Virginia) 주지사 예술-과학기술 영재학교처럼 학문적 성취도 강조하여 실기 능력보다는 창의적 사고의 배양을 강조하는 교육기관도 있다. 실기를 잘 하는 사람을 키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음악적 학습으로 키워진 감수성을 토대로 다른 분야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키우려는 것인지 각 음악영재교육기관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문주 (1990). **시험 불안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영연 · 오주일 (2004). 유아 음악수업에서 발견 가능한 음악영재의 행동특징. **2004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유아교육 현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pp. 394-395). 한국유아교육학회.
- 김용희 (2010). 음악영재 아동의 특성 및 교육. **홀리스틱교육연구**, 14(2), 43-62.
- 김용희 (2011). 음악영재의 환경인식 및 배경변인별 인식차이. **음악교육연구**, 40(3), 1-23.
- 김용희 (2012). 음악영재학생 부모의 배경 및 영재발달 환경 인식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16(2), 461-480.
- 손낙주 (1997).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기력감과의 인과관계**.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구.

- 양연숙 · 길경숙 (200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성취 압력에 따른 성취동기와 성취에 관한 비교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8(3). 197-220.
- 오주일 (2004). **음악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한 음악영재성 고찰**.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원영실 (2011). 음악(국악) 영재관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의 문항개발 및 적용. **음악교육연구**. 40(1). 241-273.
- 이미경 (2005). 최근에 일고 있는 음악영재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음악과 민족**. 29. 255-275.
- 이미경 (2010a). 음악영재선발의 실태분석과 과제. **음악과 민족**. 40. 235-256.
- 이미경 (2010b).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현황. **음악교육연구**. 39. 157-182.
- 이신동 · 광지현 (2007). 피아노 영재성의 개념과 계발 방향의 탐색. **이화음악논집**. 11(2). 195-230.
- 이신동 · 광지현 (2008). 피아노 영재의 행동특성과 연주유형의 관계 탐색. **이화음악논집**. 12(2). 63-96.
- 정진원 (2011). 음악영재교육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40(1). 1-31.
- 태진미 (2006). **음악영재교육**. 서울: 예종.
- Baum, S., Owen, S. and Oreck, B. (1996). Talent beyond Words: Identification of potential talent in dance and music in elementary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40(2). 93-101.
- Bloom, B. (ed.).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entine Books.
- Chin, C. and Harrington, D. (2007).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Musical Talent. *Gifted Child Today*. 30(1). 39-65.
- Chin, C. and Harrington, D. (2009). Innerspark: A creative summer school and artistic community for teens with visual arts talent. *Gifted Child Today*, 32 (1), p.14-22.
- Dai D. Y. and Schader, R. M. (2002). 음악훈련의 결정: 부모의 신념과 가치. In E. Zimmerman (Ed.) **예술 · 음악 영재학생** (pp. 47-69). 강갑원, 김정희, 김혜숙 역. 서울: 학지사.
- Ericsson, K., Nandagopal, K. and Roring, R. (2005). Giftedness viewed from the expert performance. *Perspective. Journal of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8(3-4). 287-311.

- Freeman, C. (1999). 결정 경험: 음악조속성에 관한 연구. In E. Zimmerman (Ed.) **예술·음악 영재학생** (pp. 97-122). 강갑원, 김정희, 김혜숙 역. 서울: 학지사.
- Harris, M. (2009). *Music and the young mind. Enhancing brain development and engaging learning*. Plymouth, UK: Rowman and Littlefield Education.
- Mareck-Schroer, M. and Schroer, N. (1993). Identifying and providing for musically gifted young children. *Roeper Review*. 16(1). 33-36.
- Peterson, G. and Nystrom, M. (2011). Music: Artistic performance or a therapeutic tool? A Study on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9(3). 229-240.
- Papousek, M. (1996), Intuitive Parenting: A Hidden Source of Musical Stimulation in Infancy. In I. Deliege and J. Sloboda(Eds.) *Musical Beginnings. Origins and Development of Musical Competence* (pp. 37-5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usatz, J., Detterman, D., Griscom, W. and Cirullo, B. A. (2008). Becoming an Expert in the Musical Domain: It Takes Just More Than Practice. *Intelligence*. 36. 330-338.
- Sand, B. L. (2000). *Teaching genius. Dorothy DeLay and the making of a musician*. Pompton Plains, NJ: Amadeus Press LLC.
- Shuter, R. (1968). *The Psychology of Musical Ability*. London: Methuen.
- Sloboda, J. A. and Howe, M. (1991). Biographical precursors of musical excellence: An interview study. *Psychology of Music*. 19(1), 3-21.
- Solomon, M. (1995). *Mozart: a Lif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Sosniak, L. A. (1985). Learning to be a concert pianist. In B. S. Bloom (Ed.)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pp. 19-67). New York: Ballentine.
- Wojick, J. (2002). Musical talent: Innate or learned? *Duke Gifted Letter*, 3(1).
- Wright, B. (2002). Performing Arts Instruction for Exceptionally and Profoundly Gifted Children. http://www.hoagiesgifted.org/performing_arts.htm. Retrieved from 11. 17. 2011.

ABSTRACT

**Instructors' Perceptions on the Musically
Talented Students' Educational
Environments in South Korea**

Kim, Yong-Hee

Instructors are the people who guide their students as well as know them very well. This present study examined how music instructors in the public institutes for the musically gifted and talented in South Korea perceived their students'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interview method of qualitative approach was taken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First, the interviewees thought family environments, especially parental ones were very important in the education of the musically gifted students. However, they pointed out the harmful effect of excessive zeal from some parents. Second, the interviewees showed disposition that the importance of instructors were next to that of parents for the musically gifted students. They thought the teachers need their own abilities, standards and personalities. Third, the instructors revealed some concerns about lack of social skills or emotional problems of some musically gifted students. Finally, the instructors perceived the needs of improvement for identification processes, educational policies, and curricula for the musically gifted.

key words: musically talented, gifted education, musically gifted environments

투고일: 2012년 8월 30일, 심사(수정): 9월 28일(10월 15일), 게재 확정일: 11월 21일